

## 논평 : 제주도 굿의 연희적 특징

김 태 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적인 전제를 몇가지 얘기 하겠다.

무속을 볼때에는 먼저 문학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사적인, 역사적·고고학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주축된 것은 神性권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聖과 俗의 전제를 가지고 보아 나가야 풀려진다. 그리고 굿하는데서 巫歌에서 얘기되는 것이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든지 전부 신성의 은유·상징인데 직접적으로 보지말고 다시 한 번 돌려서 神性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봐야 한다. 그래서 종교 현상을 가지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 방법인데 ‘approach’ 아무리 얘길 해도 그것이 칼로 쇠고기를 잘라 내듯 한근 두근 이렇게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복잡한 정신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까지 굿을 보고 생각해 온 것이 이 연구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현상속에서 담겨있는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지 결론을 낼 수 없고 사견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명쾌하게 단정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민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중’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굿은 ‘싸움’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싸움’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생존을 위한 방식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이 논문에서 계급분배를 얘기했고, 굿의 원리를 부정울 쓸어버린 ‘정화’라고 했다. 무엇을 전제로 부정울 쓸어버린 것이라고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이것은 굿기를 통해서 세속에서 神性으로 가는 과정인 성격이 되어 되지 않겠는가. 또 통일·해원·각종 경제적 조건 즉 세금·무역

\* 경희대

진상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볼때 저는 지금까지 논의되던 순수 학문쪽에서는 이 논문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이 논문을 <제주도 무속의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으로 제목을 바꾸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좋은 논문이겠지만 객관적인 무속·문화를 보는 한국학계 내지 국제학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